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1-2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기생 라합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기브온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으나 점차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시 되었습니다.

면 일이든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뜻과 상반될 경우에 우리는 그로 인한 쓴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창 43:14-27). 야곱의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겔에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겔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는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세겔 사람들을 급습해서 모두 죽여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400년이 지나서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은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언젠가는 자기도 속게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면 자기 후손 때 가서라도 억울함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1. 이스라엘의 과오

기브온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졌다 해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인 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이다”(출 34:12-13).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거민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히 행치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것에 근거한 판단은 과오를 가져옵니다. 느낌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추측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

우리는 결코 자신의 명철이나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권고합니다(엡 6:10-18).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2. 과오의 결과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요구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곧 그들과 화친했습니다.

3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언약에 매어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후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수많은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또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편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삼하 21:1).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어

3.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27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안히 살기를 바랐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노예가 되어 고통 받게 됩니다(21절).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고,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들은 대로 믿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

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서 중성했습니다.

이방인 라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를 버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자기들의 동맹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땅이 분배될 때 기브온은 아론의 집에 주신 도시 중 하나를 취했습니다. 400년 후에 다윗은 그 도시에 장막을 쳤고, 다윗의 신복 중 한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었으며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중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기브온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으나 점차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기브온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과감히 악을 끊고 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참을 알게 될 때는 당연히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후반기 열린프로그램 일제히 개강

### 내일 아침 요한계시록반을 시작으로

제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비롯한 2006년 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매 학기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강의실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열린프로그램은 교회와 이웃 주민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여가선용과 성경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학기는 서울성경대학에 요한계시록, 소선지서3권, 누가복음, 역대기 등 4과목을 비롯한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과 서울주부대학, 샬롬경로대학, 세계선교대학, 전도학교, 찬양대양성반, 결혼예비

학교 등이 준비되어 성도들의 수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들 누구나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편 제13기 찬양대양성반은 다음 주일(8월27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개강하여 7주간의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제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기도와 찬양목회'를 주제로 내일부터 10주간의 강의를 진행한다.

## 서울세계정보화대회 한국교회 체험

### 21일(월) 오전 7시 우리교회에서

8월20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서울세계정보화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 참석하는 세계 도서관 관계자 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부흥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여 한국 준비위원회는 우리교회

를 선택하여 21일(월) 오전 7시 본당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예배를 드리고 조찬을 갖는다.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이 이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에 좋은 인상과 도전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상담및 진료 실시

### 8월27일부터 주일 오후1-2시, 902호에서

의료선교회(회장 하인선 집사)에서는 8월 27일(주일)부터 각과 전문의를 모시고 의료상담(양-한방 처치 및 간단한 투약)을 한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다.

특히 우리 이웃 중 진료문의를 원하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교회 내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도 이용해 주기 바란다.

날짜	담 당 자			
8.27	하인선(신경외과)	주영광(안과)	박동원(한방)	김정임(약제)
9.3	안인호(이비인후과)	이진구(치과)	김영주(한방)	오행숙(간호)
9.10	오종원(내과)	박경정(치과)	박동원(한방)	이운진(약제)
9.17	김한성(성형외과)	박정원(산부인과)	김영주(한방)	김정임(약제)
9.24	노재현(안과)	김태수(치과)	박동원(한방)	오행숙(간호)

## 방글라데시 소망 호스텔

### 8월30일 개원한다

조남해 선교사(방글라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지도자 양육을 위한 소망 호스텔이 오는 8월30일 우리교회 지원으로 문을 열게 된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젊은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나 신앙유지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호

스텔에 모아 방글라데시 미래 지도자로 양육케 된다.

호스텔 매니저와 요리사와 잡일하는 뼈은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일해주고 주변의 핍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요청이 있다.

## - 시내산 -

###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시내산전경



뜨거운 태양과 구리빛 돌산들이 첩첩이 이어진 시나이 반도 남방에 신비한 모습의 산 하나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우뚝 서 있다. 하늘과 땅을 이을 듯한 해발 2,285 m 높이의 거대한 이 바위산을 아랍인들은 제벨 무사(Jebel Musa)- 모세의 산이라 불렀다.

바로 '시내산'이다. 호렘산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호렘은 산맥 이름이고 시내산의 북쪽의 낮은 부분을 말하며, 시내는 산의 정상 또는 남쪽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시내를 호렘의 옛이름으로 보는 설도 있다.

이 산 기슭에서 모세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 모세는 이 산에서 40일 40야를 금식기도하며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다.

예언자 엘리야는 이 산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구약성경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불렀다.

시내산 등정은 동이 뜨기 전 새벽 2-3시경에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이다. 순례팀은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터린 사원이 있는 해발 1,530 m 지점에서 투숙하였다가 새벽 2시전에 물통과 손전등을 각각 준비하고 숙소를 떠날 것이다.

하늘에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별들이 찬란하다. 설악산 대청봉보다 거의 600 m가 더 높은 시내산 정상까지 실제로 등산하는 높이는 750 m 정도이다. 시내산에 오르는 초입은 의외로 경사가 완만하다. 최근에는 근처에 사는 베두인들이 노약자를 위해 낙타로 순례자들의 등반을 돕고 있다. 물론 수고료는 지불해야 한다.

등반로의 마지막 1/3은 난 코스다. 경사가 가파른 돌계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낙타를 타지 못한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오르면 꿈에도 그리던 시내산 정상에 이른다. 멀리 동쪽에서 아침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추 산 주변의 돌산들이 일제히 붉은 색으로 변하여 장엄하고 신비한 황홀한 광경이 연출된다. 할렐루야! 순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마치고

# 쇠뿔, 쇠뿔, 쇠뿔, 카작스탄!

오주명 (대학부)

**쇠뿔, 쇠뿔, 쇠뿔 카작스탄 임마누엘 시간 켈떡... 쇠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카자흐스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분명히...  
그러니 기뻐하라**



8월 13일 이은준 선교사님 댁 안마당에서 열린 주일예배시간... 앓되지만 맑고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었던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9살 남짓한 카작 꼬마아이 '까비'의 찬양에, 예배드리러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은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8박9일간 카자흐스탄 파라즈에서 단기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알마티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기를 8시간 남짓. 타는 듯한 더위와 메마른 바람을 뚫고 도착한 파라즈에서 단기선교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부터 건축선교와 의료선교, 이미용 선교, 마사지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현지의 태권도장에서 초청을 받아 태권도시범과, 워십댄스 등을 현지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으로 인해 현지인들에게 직접적인 전도

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던 대신, 아픈 이의 맥을 짚는 손길에서, 머리를 손질해주는 봉사에서,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 실세없이 벽돌을 나르며 흘리는 땀방울에서 주님의 모습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없는 전도로, 외지인이라는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경계하던 현지인들도 마음문을 조금씩 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선교사님에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선교팀의 사역은 이어지고, 첫날 20명 남짓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튿날엔 70명, 100명씩 물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경학교도 열어 매일 50여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전도는 할 수 없었지만 교회와 친해지고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즈에서 2-3시간 떨어진 지역가정교회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전통음식인 사슬릭을 만들어 주시어 마을 주민과 나누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 안에

서 기뻐하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 변화중입니다. 좋지않은 치안상황과, 점점 조여드는 이슬람의 방해 속에서도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복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의 희망 속에서 이전까지 모르고 믿어왔던 이슬람을 벗어나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동진하는 기독교와, 서진하는 이슬람의 최전방 접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순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진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마누엘 하신다는 찬양이 카자흐스탄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는 더 없이 값진 기회

▼카자흐스탄 신학교회당 연장에서



## 8월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8월중 성경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한다.

수상자들은 4시50분까지 본당 2층 좌측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

- <2독>
- 유후남 권사(5교구)
- <1독>

- 남건(유년부 학생) 한영숙 집사(1교구)
- 홍광숙 권사(4교구) 박창희 권사 서영애 권사(5교구)
- 한금희 권사(6교구) 김인식 권사 채덕희 권사(8교구)
- 김규성 집사(10교구) 김보경 집사 서은석 집사
- 이난화 집사 (13교구)김재중 집사(14교구)

##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영동세브란스에서

피할수 없는 죽음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자교육프로그램이 영동세브란스 병원 호스피스 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교육은 9월11일부터 28일까지 3주간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며 수강료는 3만원(단체 5명 이상은 2천원)이다. 호스피스 사역은 우리교회가 앞으로 확장하려는 계획 중 하나이므로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9월 3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 청년부 여름수련회

오늘 저녁 진위고등학교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수련회로 금년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진위고등학교(교장 권혁우 집사)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QT수련회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잘 짜여진 강사들과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뜨거운 마음이 합쳐져 좋은 열매 맺는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교회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수련회를 통해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천국시민양성 - 장로수련회에서

# 우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

## 오정수 장로 (당외서기)

우리교회 장로(원로, 은퇴, 시무, 협동, 무임) 부부 72명이 지난 8월15일 안산공대에서 은혜롭고 생산적인 수련회를 가졌다.

이종운 목사의 '장로의 윤리' 제하의 개회특강과 김재진 목사의 서울교회 정체성의 신학적 구조 강의가 은혜롭게 있었다. 오후에는 선교사 후보-신문재, 이은숙 러시아 선교사, 이황명, 손혜신 이스라엘 선교사, 전광혜 터키 선교사들이 선교비전 보고를 하고 장로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서울교회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찾고 교회부흥을 위한 장로의 역할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날 분과별로 토의된 내용 중 서울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결정적인 요소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 치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추진력, 훈련된 일꾼, 열렬한 기도, 새가족 접근의 용이, 당회원의 겸손한 순종과 품위, 정성을 다한 경건한 예배, 기초교육 강조, 조직적 전도활동, 뜨거운 사랑, 매 주일 아침 당회원 기도회, 새가족 등록 시부터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 교회에 대한 긍지, 지역적 조건 등을 꼽았다.

교회 부흥에 저해되는 요소는 장소부족(주차장, 교육시설 등), 횡적 연합 부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경직된 분위기, 교인 수가 급증하는 관계로 성도 파악 미흡, 자격미달 직분자, 중직자 교육에 실제적인 것 부족, 부서장의 운영비전 결여, 편중된 인력배치, 금요철야기도회와 다락방 모임의 중복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교회 부흥을 위한 장로의 역할은 역량과 적극적

관심부족을 회개하고 자기 갱신과 교회이념을 바르게 숙지하고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면하고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모범을 보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공대 이사장 장인원 집사의 저녁 초대를 받은 후 밤이 늦도록 이윤남 목사(장석교회)의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ABC 교육을 받고 은혜와 감사와 결심의 마음을 안고 서울로 돌아오니 밤 9시 30분이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들의 헌신과 모범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 나의 하나님

# 50년 만의 세례

## 이준영 성도(3교구)



저는 지난 6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은 후 50년이 지나서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학습을 받고도 50여 년 간 이 교회에서 교회 방황하다가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늘 뒷좌석에 앉아 예배드리며 끝나면 집에 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군 후배를 만나 새가족부부 안내 되었고, 새가족부 모임을 통해 무엇보다도 서울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되었고 하루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길에서 전도를 받았든가, 전도 책자를 접했다든가, 방송 매체를 통하든가, 아니면 지인의 전도를 받아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온 영혼들이 교회에 가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 믿음의 길로 인도되지 못하고 도중하차 하거나 또는 머뭇거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결국 저를 찾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지금도 교회는 왔으나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새가족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찾아온 새가족을 내 식구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한 사람도 잃지 말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친절하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교회에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전사로 만들어 복음전파에 앞장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듯 합니다.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듯 마음이 개운하고 하나님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하루 속히 새가족부를 찾아 믿음의 길로 인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쓰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월) 오전 7시 '06서울세계도시관 정보대회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25일(금) 웨스트민스터 신학 심포지엄 준비 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녀 : 한용삼 성도 김선영 성도가정(4교구)
- 개업 : 최현주 성도(13교구) <경남떡방> 분당구 정자2동 031)714-6336, 714-7089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 선교회(8월20일) 베드로선교회(8월27일)
- 금주의 식사 및 떡 제공: 우선자 권사 홍혜련 홍혜란 선생 가정 (고 홍정호 장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경로대학·각종 열린프로그램 은혜롭게 개강되도록
2. 3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방글라데시 호스텔, 카자흐스탄 교회신축위하여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간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5.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의 신앙 자유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